

소중한 다대에서의 여러가지

경북대학교

김유진

2023년 가을 학기부터 오차노미즈 여자대학교에서의 대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에 와서 일본어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전공 수업도 들을 수 있어서 공부가 되었습니다. 지도교사 선생님과 오차노미즈 여자대학교 덕분에 유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고, 1년 동안 오차노미즈 여자대학교에서 유학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어 실력 향상을 위해 '일본어 사정 4B', '일본어 연습' 등 여러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일본어 연습 3B'입니다. 일본어 연습 3B에서는 자신이 인터뷰하고 싶은 인물을 인터뷰하고 팸플렛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은 상대를 찾는 과정에서부터 의뢰 메일 작성, 인터뷰 동의서 작성, 감사 메일 쓰는 법 등 인터뷰에 관해 여러 가지와 존댓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일본어의 정중한 문장에 있어서의 쓰기·읽는 방법의 실력을 높일 수 있었고, 게다가 팸플렛의 제작이나 인쇄 회사와의 교환의 방법도 알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전공 수업인 기초 유기 화학 수업도 공부가 되었어요. 기초 컨셉부터 배울 수 있었고 수업 안에서 화합물 구조 만들기도 할 수 있어서 수업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수업 중에 새로운 친구가 생겨서 기쁩니다.

대학생활에서도 좋은 추억이 많았습니다. 일본에 오기 전에는 외국인과 대화할 기회가 없었는데, 일본으로 유학을 와서 일본인 친구는 물론 다른 나라 친구들과도 영어나 일본어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기뻐했습니다. 국제교류회를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할로윈 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과자를 먹거나 코스프레 대회를 했던 것 등이 추억이 되었습니다. 일본인 친구가 일본의 일식을 만들어 준 것도 매우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함께 음식을 만들면서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지도 교관이신 모리미츠 선생님의 연구실에서도 여러 가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환영회 때 함께 음식을 만들 수도 있었고, 연구실 여러분이 만들어 주신 야끼소바나, 킷슈, 오코노미야키 등을 먹을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나 송년회로 연구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한 연말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바베큐 파티나 여름 휴가 뒤 풀이도 참가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 교관인 모리미츠(森光)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매달 저의 되돌아보기 시트를 읽어주시고, 여러모로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국제과의 오노 씨는 일본에 오기 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유학생활동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토와칸에서 어려울 때 항상 도와주신 관리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대에 와서 1년간 유학생활동을 해서 행복했습니다.

